



"동성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43(7) , 1999.7, 123-153(31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134769
APA Style	양명수 (1999). "동성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사상, 43(7), 123-153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동성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는 죄인가

양명수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동성애는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성서에서도 동성애 얘기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동성애 얘기가 나온다. 생각해 보면, 특별히 기술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날 있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 사는 모습이 비슷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천년 만년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욕망의 기본 뼈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도 늘 있어온 것이리라. 그러나 욕망을 바라보는 눈은 바뀌었다. 그러면서 가치 판단의 문제도 간단치 않게 되었다. 물어두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성욕의 문제가 당당한 애깃거리로 등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옛날에는 무조건 죄악시하고 감추어야 했던 것이다. 애깃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논의

하는 세상이 되었다. 가치 판단의 애깃거리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사회에서 동성애를 보는 관점이 상당히 바뀌었음을 뜻한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그 변화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동성애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져봐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휴머니즘, 욕망을 이야기하다

먼저, 동성애를 두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휴머니즘은 사람의 욕망을 해방시켰다. 휴머니티, 곧 사람의 사람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 권위의 근거를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옮기면서 사람은 주체요 목적이 되었다. 모든 규범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거나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양심이 스스로에게 내린 것이 된다. 가치 판단의 주체도 사람이요, 그 바탕도 사람이 되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정당화(justification) 역시 사람의 몫이었다. 정당화 문제를 하느님에게 맡기는 것(justification by the Grace)과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걸로 드러내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전통에서 물려받은 도덕 규범이나 가치 판단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가치의 근거(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근거라는 책을 썼다)가 되면서 '인간적'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근대는 사람이 크게 두드러진 시대요, 그만큼 사람 해방에 이바지한 시대다.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억압하는 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이루려는 운동이었다. 그것은 욕망의 해방으로 이어진다.

이미 르네상스에서 그 문제의 싹을 볼 수 있다.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중요한 것



외국의 동성애 잡지들
『OUT』(미국), 『열애』(대만)

은 그 미소의 아름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그렸다는 점이다.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 성녀도 아니며 천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 그림의 주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하고 귀하게 보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또한 원근법의 등장은 이제부터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철학을 암시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이 있다. 그 소설은 일종의 음담패설이다. 그 작품성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그 소설의 중요성은 일상을 얘기했다는 데 있는 것 같다. 특별한 얘기 또는 거룩한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애깃거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보통 사람을, 그리고 일상 생활을 애깃거리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성과 속의 이분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성스런 장소가 따로 있지 않고 일상 생활의 장소 역시 중요한 곳으로 등장하고, 주일만 성스런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시간도 사람하기에 따라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속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 해방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요, 종교 개혁은 시간과 공간을 해방한 점에서 이른바 세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육체는 오랫동안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나체화가 등장한다. 사람의 육체가 아름다움의 주제가 된다. 사람을 긍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지닌 모든 것을 긍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사람의 욕망도 긍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휴머니즘 철학이 등장할 무렵, 사람을 주체요 목적으로 세울 때 의지했던 것은 사람의 이성이었다. 감성과 욕망은 누르고 극복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을 긍정하기 시작한 그 운동에 이미 사람이 지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힘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힘은 곧 현실로 드러났다.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는 신념 속에는, 사람이 지닌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힘도 들어 있었다.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나 감각은 적어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는 얘기에는,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무조건 죄악시하던 시각이 사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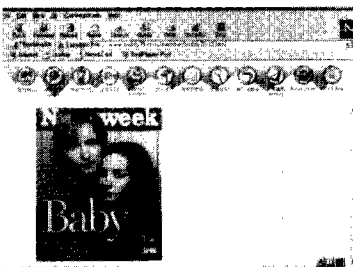
성욕은 오랫동안 애깃거리가 되지 않았다. 아기를 낳아 종의 번식을 담당하는 중요한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욕망 그 자체는 부끄러워 감추어야 할 것이었

다. 그런데 부끄러워하는 데는 인류 생존 차원의 비밀이 있다. 사실 성 문제에는 부끄러움 이전에 상당한 조심스러움이 있다. 성은 조심스런 문제였다. 성욕을 잘못 처리하면 여자를 놓고 종족간에 대전쟁이 벌어져 전멸하는 수도 있었다. 원시 사회에서 특별히 성과 관련된 금기, 특별히 여자의 피와 관련된 금기가 많은 까닭도 그것이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성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벌에 처했다. 그래서 간음은 살인보다 무서운 죄였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간음은 부족 전체를 전멸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성욕을 부끄러워하는 데는 그런 기억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부끄러움 뒤에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에는 이른바 섹시하다는 것이 아름다움의 한 축으로 일컬어진다. 말하자면 성욕이 적극적인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다. 가치에는 도덕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욕은 도덕 가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도덕한 것도 아니다. 부도덕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가치로 등장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드러내놓고 상당히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전에는 감추었던 것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람이 그만큼 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도 된다. 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중요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했다는 얘기가. 성 문제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되었다는 것이요, 그만큼 역사를 일구는 주체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사실 감각이나 욕망은 흩어지고 갈라지는 것이어서 해방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버디'의 보물창고 사이트



그러나 근대 휴머니즘은 사람의 능력을 키웠고 합리성으로 욕망을 서로 절제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러면서 욕망을 긍정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욕망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 성

욕을 포함해서 모든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고 잘못 사용했을 때 나쁘다는 것이다. 사실 어저스틴이 마니키아주의에 대해 한 말, '왜 그들은 물질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물질을 악으로 보는가?' 도 그런 관점과 무관하지 않다.

동성애가 애깃거리가 되는 것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한다. 휴머니즘이 사람을 긍정하면서 사람의 욕망을 긍정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는 자신감은 사람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었고, 거기서 성욕도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성욕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를 숨기지 않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얘기한다는 것은, 적어도 무조건 죄악시하는 관점이 한 쪽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휴머니즘에서 비롯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휴머니즘에는 큰 공헌이 있고 또한 한계도 있다. 우리는 먼저 그 공헌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한계도 내다봐야 할 것이다.



드래쇼의 일부

‘즐김’이 ‘생산’에서 독립하다

동성애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성 관계다. 그것은 자연 쪽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자연에서 볼 때 성행위의 목적은 씨를 퍼뜨리는 데 있다. 성욕이나 쾌락은 거기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그 자체로 독립할 수 없다. 성욕은 종을 퍼뜨리기 위해 자연이 마련한 장치다. 그런 점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범죄는 자연 쪽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범죄다. 간음이나 다른 성범죄가 종족간의 전쟁을 일으켜 전멸을 가져올 우려 때문에 죄였다면, 동성애는 아예 종족 자체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죄였다. 자연 쪽에서 보면 그렇다. 자연의 관심은 개인의 삶의 즐거움보다 종을 퍼뜨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 신학에 바탕을 둔 카톨릭에서는 오늘날에도 인위적인 피임을 반대한다. 생산과 무관한 쾌락을 일부러 마련하는 것을 죄로 보는 것이다. 동성애는 ‘얘기할 것도 없이’ 더 큰 죄로 볼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요,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자연법을 얘기하면서 동성애 얘기를 한다. 사람 나름의 자연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에 어긋나는 행위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된 자연도 있는데 그것은 성행위다. 동성애는 그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동물은 동성애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에 어긋나는 범죄와 달리 특별히 동성애를 가리켜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Q.94 Art.3). 아퀴나스의 자연법 체계에서 볼 때 이성에 어긋나는 행위도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것을 가리켜 자연에 어긋나는 범죄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다. 그리고 자연에 어긋나는 것은 이성에 어긋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자연법 침해다. 그리고 자연법 침해는 하느님의 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 사람이 주체로 서면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있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나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러면서 삶을 누린다는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삶을 누리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에서 벗어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누린다는 것은 결국 즐긴다는 것과 같이 간다. 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이 생산에서 독립한다. 사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다른 생각을 한 어거스틴에게도 어려운 문제였다. 어거스틴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 누구나 죄인임을 말해야 했다. 유아도 예외가 되면 안 되었다. 죄지를 겨를도 없는 유아가 죄인임을 말하기 위해 유전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나쁜 것인가? 기독교의 기본 인간관에서 볼 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의 탄생에 잘못이 있지 않다. 남녀의 성행위도 악이 아니다. 다만 성욕이 죄다. 그 성욕을 통해 전세대의 죄가 아이에게 유전된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즐기지 말고 이성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 문제다. 성행위에서 즐거움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관계를 즐거움의 문제로 생각한다. 자연이 바라는 생산의 문제는 이차 문제가 되었다. 것처럼 즐거움이 생산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동성애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남을 해치지 않는 한, 즐기는 것은 좋은 것이다. 동성애를 수용하려는 움직임 속에는 그런 가치 판단이 깔려 있다.

‘차이’와 ‘차별’ 사이에서

소수의 인권 문제가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사람이란 ‘누구나’를 가리킨다. 인류 사회에서 강자는 늘 그런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특별히 인권 사상이란 결국 약자 보호의 문제로 간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를 만드는 아주 뿌리 깊은 태도가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을 배척하고 탄압하는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회는 결속력을 다진다.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문제다. 다름을 다름으로 놔두지 못하고, 같음의 대열에 줄을 세워 열등한 것으로 만든다. 남자가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여자가 다른 존재고, 어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아이가 다른 존재고, 백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유색 인종이 다른 존재고, 정상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는 장애인인 다른 존재다. 어린아이들이 놀 때 보면, 뭔가 좀 다른 아이를 놀리면서 논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아주 친하게 지낸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다. 사회의 아이덴티티는 것처럼 색다른 소수를 속죄양으로 만들면서 이룩된다. 그 뿌리에서 볼 때 사회는 끼리끼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 ‘끼리’에 끼지 못한 소수는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받는다. 거기에 신학이 곁들여지면 죄인이 된다. 옛날에 장애인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 사상은 소수 곧 색다른 존재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간다. 동성애자들은 색다른 자들이요 사회의 소수다.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며, 색다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욕망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닌 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또 어떤 점에서 변태라고 하더라도, 변태는 병은 될지언정 죄는 아니지 않는가. 적어도 그들을 죄악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더구나 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9:1, 2). 결국 동성애에 대한 논의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23**

동성애자들이 더 인간답다

정숙자 (목사, 여성교회)

내 주위에는 많은 동성애 친구가 있다. 이들은 내가 추구하는 인간평등 사회를 꿈꾸며 현실사회 속에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성애자들보다 더 인간답다.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를 지지한다.

1967년에 나는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을 만났다. 북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던 중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모습과 여성운동을 실천하는 그룹들을 답사하다가 한 작은 마을에 여성만 모여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방문했는데 이들이 동성애자였다. 나를 안내한 사람은 남자 목사였는데 현장을 찾은 내 요청을 받아 수소문 끝에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갔다. 하지만 그분은 이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들은 내놓고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사 짓고, 소와 가축을 기르고, 집에서 소를 잡아 소고기를 만들어 냉동시키고, 야채도 냉동하거나 말려서 보존시키는 등 사람과 가축의 식량을 모두 스스로 마련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이들의 노력에 마을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여성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 시기에 북아메리카의 여성운동을 몸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15명 정도 되는 30대 전후의 여성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결혼에 실패한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왜 이러한 어려운 결단을 했는가 질문하니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시는 전과 같은 삶, 남편에게 매맞고 폭행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나 자신의 삶도 네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가 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남편을 이해시키면서, 1960~1970년대의 인권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발맞추어, 자신의 길을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투쟁의 삶이었기에 이들의 아

동성애를 반대한다

맹용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이 글은 동성애(同性愛, homosexuality)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쓴 것이다. 동성애는 성적 관계에 있어서 동성끼리, 즉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끼리 갖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고대 헬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성서에도 알려져 있는데 창세기 19장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사람의 개인적 조건이다. 그 원인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람의 초기 성장 과정의 환경에 기인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유전자적 요인이나 호르몬의 요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한계를 넘어선다. 또 우리의 목적도 거기에 있지 않다. 다만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많은 논란을 거듭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대단히 심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압도했으나 차츰 그것에 대해 관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심지어 기독교의 어느 교단에서는 그것을 의제로 등장시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까지 있었으나 실패한 경우도 있다. 동성애 관계를 합법화하여 결혼으로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는 질문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 이번 찬반 논쟁을 하게까지 된 모양이다. 필자는 주어진 과제에 따라 동성애 반대의 입장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보겠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한다

구약성서는 두 곳에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한 곳은 레위기 18장 22

동성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1

픔은 곧 내 아픔으로 전달되었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통할 수가 있었다.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가 혼자 지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도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었다. 이들의 성생활이었다. 마침 안내하던 남자 목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당신들은 성생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라고 물었다.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너무나 노골적인 질문을 했던 것이다. 놀라던 그들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요즘 같으면 목사들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선포하면서 자기권리를 찾고자 하지만, 아직 70년대 중반을 살아갔던 이들은 동네사람들이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알아차리고 자기들을 쫓아내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굉장히 놀랐던 것이다.

갑자기 대화가 끊기고 조용한 순간이 지났다. 감사하게도 이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안내하신 남자 목사가 없을 때 질문해주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는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됩니다.”

아직 북아메리카에서도 동성애자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다. 나도 내심론 놀랐지만 태연하게 행동했다. “사실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인간 삶 속에 의식주 외로 중요한 것이 사랑의 행위인데, 그러면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들도 동성애자로 만들 겁니까?” 내 입에서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 나왔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본인의 선택에 맡기려고 합니다. 아직 어리지만 조금 더 크면 학교기숙사나 홈 스테이를 시켜 여기서 내보내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이 대답해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동성애자들이 맺은 계약은 성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성행위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행위지 자기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폭력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성행위를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 아름다운 행위요,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폭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성애 관계에는 폭력 행위가

절 말씀이고 다른 한 곳은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이다. 여기에 레위기 20장 13절 말씀만을 인용하기로 하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 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또 그들을 죽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결국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인 요 하느님의 백성의 삶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성서는 더욱 근원적으로 금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 관계를 갖는 사람을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남자로서 성을 파는 사람),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중상, 비방, 명예 훼손하는 사람), 토색하는 자(속여서 빼앗고 사취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다(고전 6:9-11). 세상이 바뀌고 개방 결혼(open marriage)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남색하는 것, 즉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 또 동성애는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유혹에 해당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는 동성애를 순리대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롬 1:26-27), 결국 다른 모든 악한 죄들과 함께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롬 1:24-32 참조).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죽음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색, 즉 동성애를 막기 위하여 하느님이 법을 세운 것과 동성애는 분명히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으로 바울은 밝히고 있다(딤후전 1:9-10).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른 교훈으로 돌아와 복되신 하느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딤후전 1:11).

있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성끼리 애무하는 것은 정당하고 동성끼리 사랑하면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선입견 때문이다. 여성들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폭력 때문에 사랑마저 상실한 친구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삶, 그것이 동성애라고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믿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어떤 사랑이든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 에로스의 사랑을 육신의 정욕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하느님의 사랑 아가페와 차별하여 기독교에서는 에로스 사랑을 배제한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에로스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에로스 사랑 없이 참된 인간 사랑을 경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인정하고 그 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나는 동성애자들을 만남으로써 성차별이라는 차원에서도 인권이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누구나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자유와 평등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우리도 자기 인권을 회복시키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기에 이 만남이 나에게 아주 중요했다. 왜냐하면 나의 고루한 사고방식을 진보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로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살림」(1995년 5월호)은 이 문제를 취급하여 “이 사람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글을 소개했다. “이젠, 더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자들의 공동체인 ‘친구사이’ 회장, 이림 씨의 글과 한백교회 목사 김진호 씨의 “동성애를 보는 한 시각 -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한성신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인 광분이 씨의 “동성애에 대한 성서의 입장” 등이다.

이림 씨는 “동성애자는 동성과의 섹스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살며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삶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호모’(Homo Sexual)라는 명칭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차별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는 기독교 역사 내내 인정받지 못한 행위이다. 교부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성(sexuality)이 육체적인 것으로서 영적인 이상보다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즉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이상이 더 고상하고, 육체적인 성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성적 일탈 행위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특히 수도사들은 여자들의 성적인 유혹을 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의 성적인 유혹도 피하여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성애 관계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며 악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정죄하면서 참된 남성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하느님의 계획하심에 반대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기독교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여기실 것으로 판단하게 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순리를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

중세에 와서도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남녀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고 성관계를 출생을 위한 필연적인 행위로 이해했을 때, 동성애 관계와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에 대해 용인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그는 출생을 전제로 해야 할 성관계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동성애는 성관계를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서 왜곡시키는 것이며 성적 열망을 방자하게 만드는 행위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벌칙까지 두어 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벌을 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세에는 동성애가 이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래서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법처리에까지 넘겨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개신교에서는 동성애 관계를 갖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개신교에서는 동성애를 기독교가 허락해야 할 성적 행위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성애가 기독교인에게 대안적 성행위로 수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성애의 결혼을 승인하기는 어렵고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고 주례하는 목사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

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오히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찾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힘으로써, 자긍심의 표현”으로 우리 스스로 ‘게이’(Gay, 기쁘다는 뜻)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게이’를 마치 이성전환증자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겪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나누고자 한다. 동성애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기까지의 고통이 가장 컸다고 한다.

이런 씨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고통 받거나 차별당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사랑의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성적 경향이 동성에게 향한다는 그 고문은 성에 눈뜨기 시작하는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되는데 대부분 20대 중반에 와서야 겨우 자신을 인정하게 된다. 그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10년 정도이다. 거의 모든 동성애자는 자신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으로 명랑하고 쾌활하게 보내야 할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대부분을 어두운 그늘 속에서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보내버린다. 그 길고 외로운 싸움에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종교를 접하면 더 없이 나쁜 인간으로 매도되어버리는 종교적 현실에 좌절하게 된다. ... 그 뒤에는 결혼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는데 ... 동성애자의 이성과의 결혼은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당한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계시다고 고백해왔다. 그래서 우리들은 노동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관심을 기울였고 민주화과정에서 옥고를 치른 수많은 정치범, 특히 공신주의자라고 불리던 자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직도 성의 문제에서만은 인색하다. 목사들은 아직도 성교육이나 성문제에 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목회자들 스스로가 성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성



단된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동성애를 강하게 별하거나 반대하는 경향보다는 교인으로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강경한 자세가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기도 한다.

신학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독교 역사를 보는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애 관계를 자연적인 관계라고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서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신학은 이러한 성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나 형태를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체계화하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학적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첫째로 결혼의 의미에서 동성애 관계를 반대한다. 결혼은 성서에서 분명히 남녀의 관계를 말한다. 기독교윤리학은 결혼에서 남녀를 신랑과 신부로 구분하고 밝히고 있으며 그것을 하느님이 정당한 결혼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하느님이 짝지어주신 것이라는 말씀과 사회의 제도로서도 분명히 남녀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의 윤리적 전통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성서의 가르침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의 관계를 결혼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신 내용도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여하신 결혼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되는 남녀의 결혼이지 동성애 관계의 잔치가 아니었음을 밝혀준다.

둘째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따라서 동성애 관계를 반대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이혼에 대하여 반대하셨다. 물론 아내의 음란한 연고라는 조건을 제외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내라는 말을 하실 때 그 아내는 여자이며 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남자이다.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계신다. 또 예수님은 아내를 버릴 경우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그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욕을 억제하기 힘들면서도 성욕을 극복하는 길이 마치 성스러운 삶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부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고 성욕을 느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들을 마귀로 규정했다. 자기들의 몸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하나님의 창조로 인정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고 지금도 겉으로는 거룩한 채 살면서 뒤에서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자행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삼아 저질러지고 있다. 모두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이다.

이러한 목사들보다 ‘친구사이’ 회원들은 훨씬 솔직하고 정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든, 아직 자의식이 생기기 전에 이성에 대해서 쓴 경험을 가졌든, 혹은 성장 후에 이성의 폭력을 경험했던 각자의 배경은 다르겠지만 본인이 이성보다 동성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가운데 게이 친구가 있었다. 목사가 되었어도 자기가 사랑을 나누는 반려자로서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동성애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가 이성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더 슬퍼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자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다른 친구는 여자 목사이다. 그녀는 미국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 목사나 여 전도사에 대한 남자 목사들의 성추행과 성폭력의 희생자였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그 교회에서 남자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에 부응은 여전도사를 자기 노리개와 같이 취급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었지만 다시는 남자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레즈비언이 되었다. 같은 여성끼리 고통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며 치유를 받았고 지금은 다시 목회를 시작했고, 잘하고 있다. 목사가 된 그녀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식도 올리고 세상에 자기가 레즈비언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집적거리는 남성들의 시선으로부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여러 사람이 희생적인 운동을 벌인 끝에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들도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장애인들이다. 그들은 이성간의 결혼이라는 틀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남녀에 관계되는 것이며, 동성애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인간적 사랑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의 관계를 반대한다. 이것 또한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사랑의 대상이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독교윤리학적 입장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로 생각하며 그 제도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사랑을 반드시 해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있다. 사랑은 수단이며 하나님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기본질서로 허락하신 것이다. 물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한다면 남녀끼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넷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관점에서 동성애의 관계를 반대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로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녀의 결합을 인간의 삶의 보호, 지탱, 지속의 관계로 보며, 이것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해하게 한다. 그 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갖는 결혼은 남녀의 관계이다. 동성애의 관계는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되면서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섯째로 생명 출산의 관점에서 동성애의 관계를 반대한다. 최근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복제를 가능하게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결과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머물지 않고 남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윤리학에서의 생명 출산은 남녀의 성적 결합에 의하여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녀의 성적 접촉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점을 김진호 목사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김진호 목사는 “우리는 동성애의 문제가, 즉 동성애를 둘러싼 담론이 단지 성적 신호라는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본다. 거기에는 배제와 편견이라는 권력의 뚜렷한 자취가 서려 있다. 이것은 동성애자를 편견과 배제의 대상으로 소외시킬 뿐 아니라, 이른바 정상인들의 삶을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왜곡된 욕망의 추구자로 만든다”고 말한다. 결국 권력을 가진 이성애자들의 틀,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틀 속에서 동성애도 이성애도 모두가 희생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호 목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성애자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간접적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동성애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가 기독교인이다. 이들은 성서를 근거로 그 정당성을 밝힌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미 광분이 교수는 “동성애에 대한 성서적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창세기 19장 4-11절,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을 지적하고 해석하였다. 사사기 19장 22-25절의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이야기도 룯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을 말해준다. 광분 이 교수는 이 구절들은 출산에 대한 규범으로, 생물학적인 무식에서 오는 잘못된 해석으로, 그리고 남성의 인격을 저지하는 것 등으로 이해하면서 남성의 동성애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여성의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리고 광 교수는 예수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데 큰 비중을 두면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등에 기록된 바울의 묘사 중, 표준새번역에 ‘남색하는 자’라고 기록된 그 내용을 헬라이어 풀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광 교수의 이러한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나는 광 교수가 접근하지 않았던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우선 소돔과 고모라와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 나타난 폭력배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논하는 동성애와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하여 나그네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여성 신학자들은 남성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딸을 내주려는 아버지나 첩을 내주어 욕보이게 한 레위인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비판한다. 남자는 보호받고 여자는 아무렇게나 취급당해도 된다는 그런 사회에서 동성애나 아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성적 접촉을 통해 하느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제도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관계로 이해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확인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공적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서는 오난의 행위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창 38:10). 하느님은 육체적 쾌락을 위한 변칙적 행위를 용납하시지 않으셨고 그러한 행위를 죽음으로 판정하셨으며, 신약성서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게 된 것이다.

여섯째로 인간의 공동체를 지탱, 지속하는 측면에서 동성애의 관계를 반대한다. 동성애의 관계가 만연하였고 하느님의 천사들까지도 범하려고 한 소돔성이 결국 하느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기독교 윤리학은 하느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질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도록 안내하며 결단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 물론 기독교윤리학은 다수가 제창하고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인 것만을 최고로 삼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지탱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제도적 질서를 강하게 지지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성애의 관계를 지지할 경우 주저할 경우도 발생할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주장하게 될 경우 분명히 동성애의 관계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맺는 말

동성애의 관계는 성서의 가르침으로 보나 성서에 근거한 신학으로 보나 성서를 근거로 하는 신학인 기독교윤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기독교 역사도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사회 정서와 개인적 이해로도 동성애의 관계를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물론 동성애의 관계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위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금해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논의의 근거를 통해 동성애의 관계를 반대한다. **223**

나아가 논해질 수는 없다. 남녀가 귀중한 존재로 서로 존경과 공경을 받는 사회에서 남자들이 남자와 관계를 맺겠다고 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우리가 알기알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성서 기자가 하느님의 노하심을 마치 성 문란 때문이라고 기록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누르며 억압하고자 할 때 쉽게 사용되는 무기는 성기 그 자체이다. 일본군 '위안부' 도 그 한 예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와 보스니아의 희생자들도 모두 남자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일어난 일이다. 성서가 말하는 폭력배들은 남성의 성마저 짓밟으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남성문화권의 권력과 폭력의 횡포이지 동성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을 찾는 일이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은 모두 동성애자였던 말인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내세우며 자기 아닌 사람은 모두 자기 발 아래 짓밟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접하는 그런 사건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를 재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첩이 죽임을 당한 레위인은 분풀이로 그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 12지파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죄는 시체유기로 왜 묻지 않는가? 폭력배들의 행위가 민족끼리의 싸움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동성애와 무슨 상관인가?

레위기 18장 22절도 잘 보시라. 18장 전체가 성관계에 관한 규례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을 중심으로 한 울타리 만들기였다. 결국 가부장화 사회를 본뜬 사회 만들기가 백성들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한 남자가 접근을 금하는 대상인 "가까운 살붙이"를 열거해보자.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네 누이"(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네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네 딸이 낳은 딸",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네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 "네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 "네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 "네 아버지의 형제 곧 네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 "네 며느리", "네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계수", "데리고 사는 여자의 딸, 친손녀, 외손녀", "네 아내의



동성애(Homosexuality)

성 지향성이 자신과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동성을 향한 지속적인 감정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이끌림이 포함된다. 즉 단순히 동성과의 성 경험이 있다거나 동성과의 성행위 자체를 동성애라고 할 수는 없다.

동성연애(same-sexual)

기본적으로 동성과의 어떤 성적인 경험 내지는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말로서 동성애를 삶 자체로 보기보다 삶의 어떤 선택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이다. 동성연애라는 말 속에는 동성애를 치료가능한 정신질환의 일종이나 타락한 인간들의 행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각이 담겨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동성연애자라고 할 경우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말이 된다.

성 지향성(sexual orientation)

자신이 어떤 성의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성애 성향이면 동성애 성향이면 성 지향성은 개인의 의지나 선택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 정체성(sexual gender[identity])

자신이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킨다. 성 지향성이 본인의 의식이나 지각과는 상관 없이 개인의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성향이라면, 성 정체성은 그러한 성 지향성을 개인적으로 의식하고 자각하며 자신을 그렇게 규정짓는 것이다.

호모

동성애자들에 대한 속어로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성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상당히 모욕적인 단어이다.

게이(gay)

원래 남성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

형제”, “월경하는 여자”, “이웃의 아내” 등 모두 여자들이다. 결국 가부장인 한 남자가 범해서는 안 되는 이는 모두 여자이다. 이것은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분방할 경우 막대한 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다. 주로 아버지의 소유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이다.

이상의 규제 후에 세 가지 특별 규제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는 몰렉(암몬의 신)에게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는 것, 남자와 교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짐승과 교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시대에 신의 존재가 인간의 생명보다 귀했던 때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자기 성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야만인들이 모여 약한 남자를 강한 남자들의 성의 도구로 삼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이다. 동시에 이러한 남자들이 짐승까지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 하니 이러한 규제가 생길 만하다. 결국 성관계의 규제는 사랑의 행위의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유와 권력의 관계 규제라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동성애자들의 사랑의 규제에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예수가 왜 안식일 법에 그렇게도 집착했는지 알 만하다. 법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다. 죄는 구조적인 악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폭행한다면 그 관계는 동성애든 이성애든 모두 죄인 것이다. 동성애는 평등한 사랑의 관계이고 이성애는 억압적인 성관계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반대일 수도 없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은 말은 아주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들로부터 진정으로 평등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다. 동성애를 죄악시하고 자기 죄는 숨겨 놓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7년 전쯤 내가 여성교회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미국의 동성애자인 여성신학자 부부가 여성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겠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한 분은 드라마 연출가였고 한 분은 여성신학 교수였다. 이미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들이라 오신다면 여성교회 예배를 드라마로 시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준비를 해왔다. 나와 그들은 그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처



되어 사용된다. ‘게이’의 어원은 ‘기쁘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성 정체성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나타내준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여장 남자나 성 전환자를 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따로 있다.

☞ 바팀(마짜)과 탐(때짜)

남성동성애자 가운데 여성의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팀(혹은 마짜)이라고 하고, 남성의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을 탐(혹은 때짜)이라고 한다.

☞ 레즈비언(lesbian)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4대 시인 중의 한 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이다.

☞ 부치(butch)와 팜므(femme)

부치는 여성 동성애자 가운데 남성역을 맡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팜므(또는 펌)는 여성역을 맡는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이나 레즈비언을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나누려는 이성애적 시각의 부산물이라는 문제 제기로 요즘은 사용하지 않으려는 추세이다.

☞ 다이크(Dyke)

부치란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레즈비언을 비하할 때 쓰이기도 한다. 영화 〈바운드〉를 잘 보면 시저가 코키(지나 거슨)에게 다이크라고 부르며 화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성전환자(transsexual)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 드랙 퀸(drag queen), 드랙 킹(drag king)

여장 남자를 ‘드랙 퀸’, 남장 여자를 ‘드랙 킹’이라고 한다. 이성애, 동성애, 성 전환자

음부터 밝히지 않기로 하고 예배 속에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이 준비한 예배는 인간 모빌이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제목마다 새로운 표현을 몸으로 하는, 그런 몸과 말씀이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모두를 감동시킨 예배였다. 드디어 '명상과 나눔 시간'이 왔고 그들 중 한 분이 자기들은 동성애자이고 부부라고 고백했다. 한순간 여성교회 안에 침묵이 흘렀으나 예배의 감동이 아직 남아 있던 탓에 큰 동요는 없었다. 그리고 여성교회가 언제나 하듯이 모두 한 마디씩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약 20명 가량의 참가자들이 한 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를 처음 만났어요, 너무나 놀랐는데 사실 보통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네요."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성애자를 처음 만났는데요, 두 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 같으면 동성애자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네요" 등등. 쑥스러웠던 분위기는 금방 없어지고 아주 친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동성애자가 된 이유를 말해주었을 때 모두 공감했다. 그들은 남성들과의 만남에서 못 느낀 깊은 사랑을 둘 사이에서 느낀다는 것이다. 자기 것을 모두 주고 싶은 사랑, 그것이 참사랑이 아닌가? 동성애자가 그런 사랑을 나눈다면 서로 싸우는 이성애자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직도 남은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성행위의 부분이고 모두 호기심을 버리지 못한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들과 여신도회 회원들 20명이 1996년에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 교회에서 남자 동성애자를 초빙하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짝인가를 역설했고 사랑의 결합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런데 질문 시간에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성생활에 대한 질문을 통역인 내가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성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60이 넘어 보이는 남자 분이 솔직하면서도 진지하게 말해주었다. 이미 시간이 흐른 탓으로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다. "서로 애무합니다. 상대방이 고통스러울 때 앞에서 몸을 마사지해주면 그 고통이 가십니다. 입으로 성교를 하기도 합니다.



와는 달리 ‘드랙’은 성향과는 관계없이 단지 이성(다른 성)의 복장을 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선택적인 것이고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드랙에는 이성이 포함될 수 있고, 동성애자, 성전환자도 포함될 수 있다.

☞ 양성애자(bisexual)

성 지향성이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 커밍 아웃(comming out)

come out of closet(벽장에서 나오다)에서 유래한 말로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즉,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향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

동성애나 동성애자에 대한 비이성적인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혐오를 가지고 대하며, 익숙치 못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말한다.

☞ 퀴어(queer)

사전적인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이다.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말은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의 방향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수용된 단어이다. 퀴어는 동성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 즉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을 모두 포함한 말이다.

☞ 이반

일반 이성애자에 반하는 말로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이다.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원래 종료를 중심으로 한 게이들의 은어로 쓰던 말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일반(一般)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한국말이다.



우리는 서로 더럽다거나 싫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불결한 행위는 안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을 자기 노리개로 삼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급급한 남자들과의 관계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는 이후 동성애자들의 인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일본에도 동성애를 선언한 여 목사가 있다. 그런데 억압받는 자와 함께 한다고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의 인권운동을 위해 함께해온 이 목사를 한인교회에서 공격한다고 한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 본인도 동성애자가 되었다. 한국, 재일, 일본 여성신학자들은 포럼을 열고 새로운 가정의 모델을 찾다가 일본 목사의 제안으로 동성애자들의 가정을 하나의 모델로 인정했다. 한국의 여성동성애자인 여신 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로 학력의 차이나 경제적 배경의 차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형성된 동질감에 기초한 연대의식은 레즈비언 커플 관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동성애공동체가 새로운 가족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가부장적인 가족의 해체와 평등가족 형성이라는 희망을 동성애가족은 우리에게 준다.

하느님은 조건과 상황을 따져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실한 속마음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기에 앞서 편견과 ‘상식’만으로 사람을 단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것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둘러싼 왜곡된 시각과 관습을 깨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가부장 사회의 폭력과 억압에 맞설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또 하나의 귀중한 만남이 될 것이다. 723



☞ 소도미(sodomy)

구약성서의 '소돔과 고모라' 편에서 유래한 용어로 중세의 성제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단적 성행동을 통틀어 가리켰던 용어이다. 지금은 동성애자를 부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한국 동성애자 단체협의회 소속 단체(가나다순)]

-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 '사람과 사람' (015-8631-1905)
- 광주·전남지역 동성애자 모임 '빛동인'(062-153-314-7942, 비밀번호:7942)
- 나우누리 동성애자 모임 '레인보우'(나우누리로 접속, 텔넷 주소 nowcom.net)
- 대구·경북지역 남성동성애자 모임 '대경회'(053-153-314-7942, 비밀번호:7942)
- 대구·경북지역 여성동성애자 모임 '와이넷'
- 동성애자 인권 연대 '동인연'(02-238-0609)
- 부산·경남지역 동성애자 모임 '같은마음'(051-153-525-2580, 비밀번호:2580)
- 부산·경남지역 여성동성애자 모임 '안전지대'(051-153-929-7272, 비밀번호:7272)
- 서울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 '마음 006'
- 서울지역 동성애자 모임 '퀴어프랜드'(051-153-815-7972, 비밀번호:7272)
-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 '컴투게터'(http://inote.com/~cometo)
- 원주·강원지역 동성애자 모임 '거아사'(0371-153-314-7942, 비밀번호:7942)
- 유니텔 동성애자 인권동호회 '거아사'(02-153-789-7272, 비밀번호:7272)
- 인천지역 여성동성애자 모임 '한우리'(032-153-395-2995, 비밀번호:4328)
- 천리안 동성애자 인권 모임 '퀴어넷'(천리안 접속 후 GO QUEER)
- 청주·충북지역 동성애자 모임 '거아사'(0431-153-314-7942, 비밀번호:7942)
- 하이텔 동성애자 인권 모임 '또하나의사랑'(하이텔 접속 후 GO QUEER)
- 한국 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02-464-7916, 462-8425)
- 한국 동성애자 기독교 단체 '대전 로렘나무그늘'(042-153-654-2580, 비밀번호:2580)
- 한국 동성애자 기독교 단체 '서울 로렘나무그늘'(02-153-333-2580)
- 한국 동성애자 의료인 모임 '동의모'(015-8429-3422)
- 한국 여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끼리끼리'(02-332-7046)

갈라디아서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제40권이 한신대학교 김창락 교수에 의해 나왔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언어적으로, 문해비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달성되지 않고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삶의 정황과 관련시켜 해석해야 한다는 저자의 학문적 고집이 본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수작이다. 따라서 저자는 현대 해석학의 '지평융합'에 만족하지 않고 '삶의 관계의 융합'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교리논쟁으로만 해석하는 관념론적 바울 칭의론의 본래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김창락 지음/신국판(양장)/424쪽/20,000원/대한기독교서회

공관복음서 연구

공관복음서는 신약성서 문서를 중에서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문서 형성의 사상적인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우리말로 읽으면서 적절히 연구할 수 있는 교재나 참고서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최근에 듀크 대학 교수 샌더스와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의 부인 데이비스의 공동저작으로 출간된 공관복음서 연구서가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신약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공관복음서를 설교하려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E. P. 샌더스, M. 데이비스 지음, 이광훈 옮김/크라온판/524쪽/20,000원/대한기독교서회



그것은 이것입니다

저자가 <한국기독교공보>에 연재해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70편의 글들과 더 찾아낸 주제를 다룬 50여 편의 글들을 모아놓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생활을 비롯하여 설교의 언어나 교회 생활에서 알고 있던 항목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잘못된 부분의 성서적, 신학적 해석을 알기 쉬운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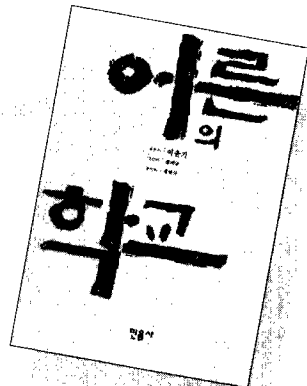
저자의 말처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이 바르게 알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정장복 지음/신국판/288쪽/8,000원/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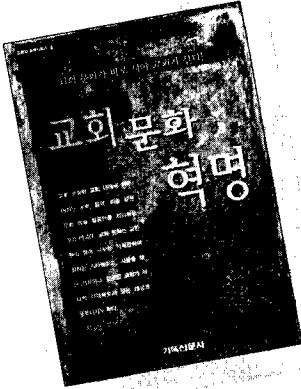
어른의 학교

이 책은 중편소설 "숨은그림찾기 1"로 제29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저자가 글을 쓰고 프랑스에서 창작활동 중인 정재규 화백이 붓으로 그림을 그렸고 정병규디자인의 정병규 대표가 책꼴을 디자인했다. 따라서 그 구성이나 디자인에서부터 개성 있고 독특하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저자의 풍부한 인문교양과 신선한 감각의 유머, 인간살이의 진실이 녹아 있는 산문 32편이 독자들을 진지한 긴장으로 이끈다.

이윤기 지음 · 정재규 그림 · 정병규 꾸밈/국판/192쪽/
7,000원/민음사



교회 문화 혁명



이 책은 교회문화론, 예배, 집회, 리더십, 임직, 교육, 언어, 출판, 커뮤니케이션, 명절, 미래준비 등 교회 문화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교회 문화가 총론은 있으나 각론이 없고, 이론은 무성하나 실천이 없고, 비판은 많으나 대안 없는 현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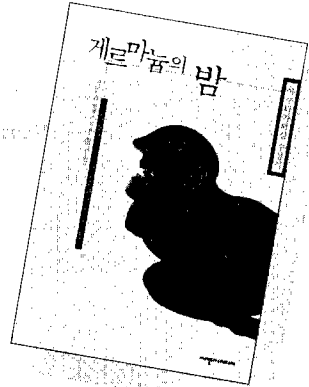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도 하는 이때 교회가 좋은 문화를 지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이의용 지음/신국판/360쪽/9,500원/기독신문사

계르마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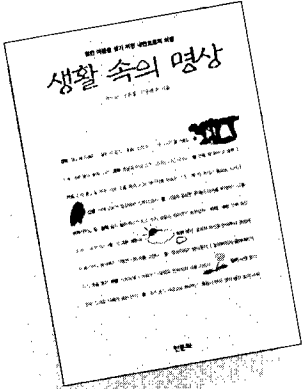
이 책은 일본 문단의 아وت사이더 하나무라 만게츠의 아쿠타가와 수상작 소설이다.

종교, 섹스, 폭력의 세 가지 모티프를 축으로 하여 언어탈락 내지는 그 상태를 살아가는 인간, 그들이 지향하는 장소에 대한 사색을 소설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는 일견 신성모독, 우상 파괴라는 말들이 금방 떠오를 정도로 성직에 대한 모독과 치열한 섹스, 모순에 가득 찬 폭력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섹스와 폭력을 통한 신성모독의 무신론 소설로 치부해버리게 할 수 없는 어떤 뉘앙스와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것은 저자가 종교의 근본에 대해 깊이 사색하고 있다는 징표가 주인공들의 터무니없는 성과 폭력, 신성모독 속에 은밀하면서도 명백한 언어와 느낌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나무라 만게츠 지음, 양역관 옮김/신국판/220쪽/
7,000원/씨엔씨미디어

생활 속의 명상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눈을 지그시 감고, 가부좌를 틀고, 면벽하는 것을 떠올린다. 이런 편협한 오해를 풀고 열린 마음을 찾기 위한 내면으로의 여행을 이끄는 책이 나왔다. 한문화 편집부에서 국내외에 책으로 소개되거나 실천을 통해 검증된 명상법들을 정리해 66가지로 엮는 일을 했고 16명의 글쓴이들—김용택, 조병준, 이유미, 임동창, 박희준, 김홍일, 정일근, 이창지, 이연자, 이현주, 이생진, 구본형, 최남률, 신원섭, 박선태, 광노순—이 명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소에 실천하고 있거나 관찰 만한 명상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노순 · 구본형 · 김용택 외 지음/번역국판/232쪽/8,000원/한문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에는 이제 유교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저자의 당차고 힘있는 글들이 가득하다.

저자는 공자의 도덕이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치', '남성', '어른', '기득권자', '주검'을 위한 도덕이었고 이것이 신분 사회, 토론부재를 낳은 가부장 의식, 위선을 부추기는 군자의 논리, 끼리끼리의 협잡을 부르는 혈연적 폐쇄성, 여성 차별을 부른 남성 우월 의식, 소송의 권위 강조로 인한 창의성 말살 교육의 문제점들을 오늘날까지 지속시키고 있다고 본다.

막연한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한국인 처음으로 갑골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학문성과 성실함이 돋보이는 책이다.

김경일 지음/신국판/328쪽/8,000원/바다출판사

